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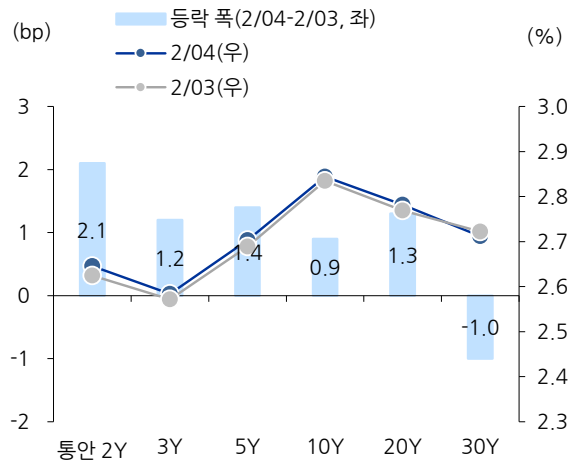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38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2/4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584%	1.2	0.7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44%	0.9	1.7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6.0	26.3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86	-7.0	-3.0
	10년 국채 선물(LKT)	118.34	-19.0	-3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15%	-3.5	1.9
	미국채 10년물	4.514%	-4.4	-1.9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29.9	30.8	33.7
	독일국채 10년물	2.398%	1.2	-16.2
	호주국채 10년물	4.417%	3.7	-0.4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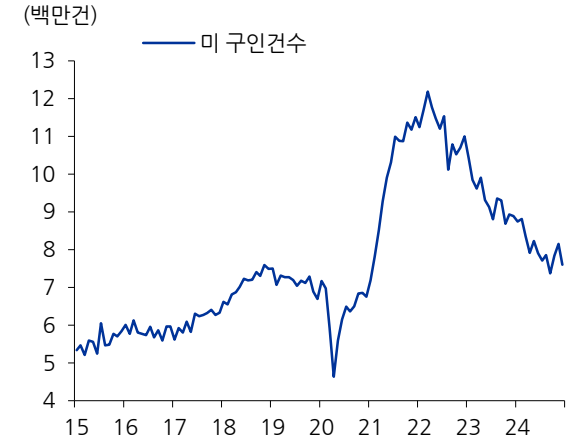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전일 미국채 흐름 연동되며 금리 반등. 간밤 트럼프, 맥 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적용을 한달 유보함에 따라 안전 선호심리 후퇴
- 반면 중국에 대한 조치는 공식 시행.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~15% 추가 관세 부과 등을 결정
- 역대급 물량으로 주목 받았던 30년물 입찰은 무난히 소화. 30년 금리는 입찰 후 오후 중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연출

미국 구인건수 추이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미-중 무역 갈등 경계감 완화. 양국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식이 대거 출현. 백악관 대변인 등은 양국 정상 간 협상 통화가 당일 이뤄질 것을 시사
- 오전 중 발표된 구인건수 부진 확인 후 금리 낙폭 확대. 구인건수, 작년 9월 이후 최저치 기록하며 예상치 대폭 하회. 감소폭은 재작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
- 금리선물시장은 3월 및 상반기 중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축소
- 금일 미국 1월 ISM 서비스업 PMI, 유로존 1월 S&P 글로벌 서비스업 PMI 등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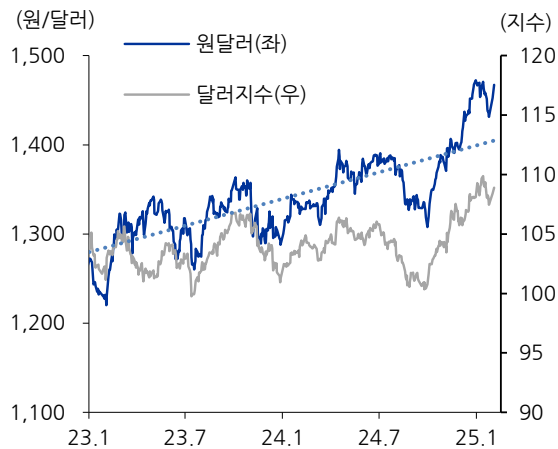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2/4일	1D	1W	YTD
원/달러	1,462.90	-0.3%	1.8%	-0.7%
달러지수	107.94	-0.9%	0.0%	-0.5%
달러/유로	1.039	0.9%	-0.5%	0.3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29	-0.4%	0.1%	-0.6%
엔/달러	154.27	-0.3%	-0.8%	-1.8%
달러/파운드	1.249	0.7%	0.4%	-0.2%
헤알/달러	5.76	-0.9%	-1.8%	-6.9%
WTI 근월물(\$)	72.74	-0.6%	-1.4%	1.4%
금 현물(\$)	2,844.39	1.0%	2.9%	8.4%
구리 3개월물(\$)	9,174.00	0.8%	2.1%	4.6%

원달러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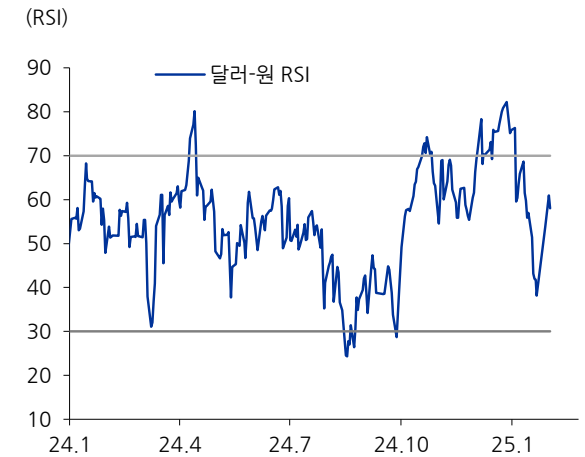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4.30원 하락한 1,462.9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51.50원 마감.
-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/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함으로써 위험 선호 심리 급반등, 달러는 반락.
- 달러-원은 -8.20원 하락 출발 후 장 초반 1,456원선까지 낙폭을 확대했으나, 이후 꾸준히 반등. 오후 중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 10%를 발표하면서 달러-원은 일시적으로 1,466원 선까지 급등 후 재차 진정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무역 분쟁 우려 완화 및 고용 둔화 시그널 속 하락.
-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 나바로 트럼프 무역 고문이 마중 정상 간의 통화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 확산.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.
- 미국 12월 구인건수는 760만 건으로 전월비 -650만 건 급감, 9월 이후 최저치 기록. 구인율은 다시 실업률 상승 임계점 부근인 4.5%로 하락. 최근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노동시장이 둔화 추세에 있음을 재확인.
- 금일 ADP 고용 및 ISM 서비스업지수 발표 예정.